

# 영어 'head/face'와 한국어 대응어의 다의성 비교 연구

김태호 · 박기성\*

(부산대학교)

**Kim, Taeho & Park, Kiseong. (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lysemy of the Body(-parts) Terms *head* and *face* in English and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3), 87-1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meaning extensions of body part terms 'head' and 'face' in English, and *elkwul* 'face' and *meli* 'head' in Korean have occurred. First, it is claimed that the meaning extension of the terms is based on the embodiment of experiences through the cognitive processes of metaphor and metonymy.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meaning extensions of the two terms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cognitive process of spatial orientation. The meaning extension of the term 'head' and *meli* 'head' mirrors the UP orientation, while 'face' and *elkwul* 'face' FRONT orientation. Third, the term *elkwul* 'face' and its synonyms a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associative meanings. It is claimed that the synonyms have associative meanings of either negative value or quality and abstractness, when they are compared to the term *elkwul* 'face'.

**주제어(Key Words):** 신체어(body-part terms), 의미 확장(meaning extension), 다의성(polysemy), 말뭉치(corpus), 공간적 지향성(spatial orientation), 구현(embodiment), 연상적 의미 (associative meaning)

## 1. 서론

영어 단어 'mouth'는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인 '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굴이나 강의 입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구분되지만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한 단어가 구분이 되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언어의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하고, 다의성을 가지는 단어를 다의어(polysemous words)라고 한다(Langacker 1987, 1991).<sup>1)</sup> 언어의 다의성은 그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의

---

\* 교신저자

대상이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임지룡, 1996; Dirven, 1985; Lakoff, 1987; Kwon, 2010; Tyler & Evans, 2003; Vyvyan & Green, 2006 참조). 신체어(body-part terms)는 우리 몸의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신체어의 기본 의미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몸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기제를 살펴보고 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점을 공간적 지향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코퍼스 자료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두 신체어가 가지는 의미 확장의 방향성 차이를 ‘head/머리’의 상향(UP) 지향성과 ‘face/얼굴’의 전방(FRONT) 지향성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신체어 ‘얼굴’과 ‘얼굴’의 유의어들은 어떤 연상적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그 차이점을 부정적 가치와 추상적 특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head(머리)’와 ‘face(얼굴)’의 다의성과 경험의 구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경험은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구현(embodiment)되어 전달된다. 즉, 인간의 언어는 다양한 경험의 산물이고, 그 경험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험이 개념화되어 표현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체어를 통한 개념의 구현이다(Lakoff, 1987; Lakoff & Johnson, 1980). 신체어는 신체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어휘를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구현과 관련된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2)

(1) We got to the **head** of this mountain pass with this switchback road

- 
- 1) 다의어는 한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서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동음이의어(homonym)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 의미들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예: ‘은행’과 ‘강의둑’을 의미하는 ‘bank’)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Tyler & Evans, 2003).
  - 2) 본 연구에 사용된 영어 예문은 약 450만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말뭉치인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추출한 것이고, 한국어 예문은 총 7,364,815어절로 이루어진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 <21세기 세종계획>서 추출한 것이다. 예문 (5)-(8)은 한지형(2014)에 사용된 세종말뭉치 추출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going downhill.

- (2) It is not helpful to let all this just float around in my **head** without taking a closer look and getting input from an objective person.
- (3) I want people to see one of the most magnificent creatures on the **face** of the earth.
- (4) Michelle Robidaux, on the other hand, was a **face** in the crowd.
- (5) 어느새 내 속에서는 또 기묘한 그 조바심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 (6) 그는 사장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세 번씩이나 연이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 (7) 그녀가 남들 앞에서 시댁 흥을 봐서 남편의 **얼굴**을 꺾었다.
- (8)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이, 긴 세월 **얼굴** 맞대고 살 부비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문 (1)에서는 영어의 신체어 'head'가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가 아니라 '꼭대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예문 (2)에서는 '생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 (3)에 사용된 'face'는 실제 얼굴이 아닌 '표면'의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 (4)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사용된 것이다. 예문 (5)에서는 한국어 신체어 '머리'가 실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도출'이나 '시작'을 의미하고, 예문 (6)에 쓰인 '머리'는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 혹은 '복종'을 나타낸다. 예문 (7)에서는 '얼굴'이 실제 얼굴이 아니라 '체면'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예문 (8)에 사용된 '얼굴'은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추상적 문맥 의미는 '얼굴'과 '머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언어로 구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구현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가 제시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인간의 경험이 신체어의 은유화 또는 환유화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언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김옥분, 2000; 김해연, 2010; 이광호, 2006; 임지룡, 1995, 1996, 1997; Lakoff, 1987; Seo, 2006). 예를 들면, 이광호(2006)는 신체어 '얼굴'과 '낮'의 의미 차이를 공식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김해연(2010)은 신체어 '얼굴'의 은유적 의미 확장 양상을 실제 언어사용 자료인 말뭉치를 통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신체어가 가지는 다의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김도형, 2014; 김옥분, 2000; 김해연, 2010; 안현정, 2006; 이광호, 2006; 이경자, 1998; Kövecses, 2006; Lakoff, 1987; Lakoff & Johnson, 1999), 여기서 (인지적) 은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개념화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Lakoff, 1987; Lakoff & Johnson, 1999). 더 나아가 은유를 하나의 개념 영역을 통

해 다른 개념 영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환유는 우선 물리적 인접성에 기반을 두고 “A is B”의 다양한 도식을 사용하다. 이러한 은유와 환유를 이용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김해연(2010)과 서향미(2013)는 각각 신체어 ‘얼굴’과 ‘face’의 은유적 의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을 제시하였고, 배도용(2001, 2002)은 은유와 환유를 통한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지형(2014)은 우리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서로 대조 분석하여, 물리적 위치가 같은 두 신체어의 확장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였다. Brown & Levinson(1978; 1987)은 ‘공손성(politeness)’의 관점에서 신체어 ‘face’의 확장 의미를 설명하였고, Strecker(1993)는 노르웨이어(Hamar) ‘face’의 확장 의미가 영어 ‘face’의 확장 의미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이제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자. 영어와 한국어의 두 신체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head/머리’의 확장 의미나 ‘얼굴’의 확장 의미 중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이루어진 반면(김해연, 2010; 배도용, 2002; 이광호, 2006), 두 어휘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한지형, 2014). 뿐만 아니라 ‘head/머리’와 ‘face/얼굴’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를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경우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김해연, 2010; 한지형, 2014).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절에서는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실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은 모두 우리 몸의 비슷한 부위를 지칭하는데, 이 두 단어가 지칭하는 신체 부위의 인접성으로 인해 두 단어가 가지는 기본 의미는 매우 비슷하다. 다음은 두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sup>3)</sup>

- (9) 방에 들어온 노학자의 이 말에 두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했다.  
 (10) 정주가 어느 결혼식에나 항상 **머리**를 내미는 것은 아니다.  
 (11) 형준이는 바쁘면서도 언제나 모임에 **얼굴**을 내민다.

예문 (9)에서는 ‘머리’와 ‘얼굴’이 각각 동작 동사 ‘숙이다’와 ‘들다’와 결합되어 신체 부위 ‘머리’와 ‘얼굴’이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기술하는데, 이는 두 신체 부위가 위치적으로 인접하여 독립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sup>4)</sup> 예문 (10)과

3) 한지형(2014)에 사용된 세종말뭉치 추출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4) 예문 (9)에 사용된 신체어 ‘머리’와 ‘얼굴’은 신체 부위 자체를 의미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행위의 주체인 ‘두 형제’의 부끄러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확장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두 신체어의 확장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11)에서도 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이 각각 사용되었는데, 이 예문에서도 두 신체어 '머리'와 '얼굴'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두 신체어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신체어 'head'의 원형 의미는 뇌, 입, 그리고 여러 감각 기관들을 포함하는 인간 신체의 윗부분을 일컫고, 신체어 'face'는 이마에서 턱에 이르는 머리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sup>5)</sup>. 마찬가지로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기본 의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신체어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을 지칭하는데,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이르며, 머리 안에 뇌와 중추 신경 따위가 들어 있다.' 신체어 '머리'와 비슷한 단어로는 동물의 머리 부분을 지칭하는 '대가리'가 있고, 한자어로는 '두(頭)'가 유의어로 사용된다. 신체어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혹은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를 지칭한다.'<sup>7)</sup> 신체어 '얼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낯', '낯짝', '꼴' 등이 있고, 한자어 표현으로는 '안면(顔面)', '면상(面像)', '면목(面目)', '체면(體面)'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어 표현 '낯'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낯짝'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꼴'도 '얼굴'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꼴'이 머리의 앞면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형상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체어 '얼굴'의 기본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또한, 한자어 '안면'과 '면상'은 주로 신체 부위 자체를 의미하여 '얼굴'의 기본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면목'과 '체면'은 '얼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sup>8)</sup>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은 모두 원형 의미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영어 신체어의 확장 의미가 한국어 신체어의 확장 의미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차이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된다.

(12) For instance, you may wish to zoom in on the **face** of a coin and then focus on a bird in the top of a tree.

(13) 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얼굴)**을 확대해서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를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위 예문 (12)에서는 영어의 신체어 'face'가 사람 머리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동전의 '앞

5)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6) 연세한국어사전

7) 옛말에서 신체어 '얼굴'은 사람의 전체적인 형체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8) 김혜연(2010:24)은 한국어 표현 '면목'과 '얼굴'의 기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면목'은 그 의미가 오히려 '체면'과 비슷하여 '얼굴'의 기본 의미보다는 확장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면'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전의 얼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예문 (13)에서처럼 '동전의 앞면'이 아닌 '동전의 얼굴'의 한국어로 직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영어와 한국어 화자가 일상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체어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원형 의미가 은유화 및 환유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 사용되는지, 신체어를 통한 일상 경험의 구현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할 수 있다.

### 3.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공간적 지향성

본 장에서는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주요한 의미 확장의 차이를 공간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head/머리'의 의미 확장의 공간적 지향성을 상향 지향성으로 'face/얼굴'의 공간적 지향성을 전방 지향성으로 보고, 그 지향성을 코퍼스 자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어 신체어 'head/face'와 한국어 신체어 '머리/얼굴'의 전체 사용 빈도수를 검토해 보자. 아래의 표 1을 보자.

표 1.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사용 빈도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i>head</i>	175,604	머리	2,708
<i>face</i>	159,140	얼굴	5,564

표 1에 따르면 약 450만 단어 중에서 'head'와 'face'가 각각 175,604개와 159,140개가 추출되어 두 어휘의 사용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은 각각 2,758개와 5,940개가 사용되어 두 어휘가 사용 빈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 사용자와 달리 한국어 사용자는 일상 경험을 '머리'보다는 '얼굴'의 은유화 또는 환유화 과정을 통해 구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9)</sup> 이제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과 관련 유의어들의 전체 사용 빈도수를 아래 표 2를 통해 검토해 보자.

9)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말뭉치를 통해 추출된 전체 용례 중에서 명사로 사용된 경우만 무작위로 각 500개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500개를 초과하여 검색된 유의어의 경우도 무작위로 500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머리'와 '얼굴'의 유의어의 사용 빈도

어휘	빈도수	비율	어휘	빈도수	비율
머리	2,708	98.2%	얼굴	5,564	90.5%
대가리	50	1.8%	낮	107	1.7%
			낮짜	19	0.3%
			안면	44	0.7%
			면상	4	0.1%
			체면	173	2.8%
			면목	26	0.4%
			꼴	582	9.5%
합계	2,758	100%	합계	6,146	100%

표 1에 따르면 신체어 '머리'는 전체 빈도수의 98.2%인 2,708개가 사용되었고, 유의어인 '대가리'는 전체의 2%에 해당되는 50개만 사용되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신체어 '얼굴'은 전체 빈도수의 90.5%인 5,564회 사용되었고, 유의어인 '낮'은 전체의 1.7%인 107회가 사용되었고, 한자어 '체면'은 총 173회가 사용되어 전체의 2.8%로 나타났다. '낮짜', '안면', '면상', 그리고 '면목'은 각각 19회, 44회, 4회와 26회로 그 사용 빈도가 낮았다. '꼴'은 전체의 9.5%인 총 582회가 사용되었지만, 이전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꼴'의 기본 의미는 '모습' 또는 '형상'이므로 표 2에 제시된 '꼴'의 사용 빈도수가 모두 '얼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표 2에 제시된 수치적인 정보만으로 '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sup>10)</sup>

### 3.1.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의 의미 확장 양상

본 절에서는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실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상향 지향성'과 '전향 지향성'을 통해 각각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 신체어 'head'와 'face'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실제 말뭉치 용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10) '꼴'의 원형 의미는 '모습, 상태'로 '얼굴'의 원형 의미와는 다르지만, '얼굴값'과 '꼴값(꼴깎)'으로 대체되는 것에서 보듯이, '얼굴'의 의미가 '꼴'의 의미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꼴'이 '얼굴'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신체어 '고개'는 총 2,597회가 사용되었는데, '머리'와 '얼굴'의 의미로 둘 다 사용될 수 있지만, 위아래의 움직임은 '머리'를 대신하여, 좌우로의 움직임은 '얼굴'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 같다.

표 3. 영어 신체어 ‘head’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 두상, 대가리, 고개	283	56.6%
우두머리, 대표자, 중요함	82	16.4%
생각, 두뇌, 이성	49	9.8%
동사	31	6.2%
상호명, 프로그래밍	10	2.0%
윗부분(상하), 앞부분(전후)	10	2.0%
한 사람/마리 전체	7	1.4%
헤어스타일	4	0.8%
기타(얼굴, 두통)	24	4.8%
합계	500	100%

영어 신체어 ‘head’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제시한 표 3에 따르면, 우리 신체의 일부인 실제 ‘머리’를 지칭하는 원형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56.6%인 283개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책임자’ 또는 ‘중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16.4%에 해당되는 총 82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생각’, ‘두뇌’ 그리고 ‘이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총 49개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말뭉치 검색 과정에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만 검색 추출하였음에도 신체어 ‘head’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된 경우도 총 31개가 검색되었지만 이는 말뭉치 검색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head’가 실제 머리가 아니라 어느 한 개체의 ‘전체’를 나타내거나, ‘앞부분’을 내포하는 의미로도 각각 7개가 사용되었다. 비록 빈도수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 머리가 아닌 ‘헤어스타일’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신체를 상하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머리’는 윗부분을 구현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머리’가 ‘윗부분’이나 ‘꼭대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겨우 3개에 그쳐 그 빈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head’가 ‘두통’이나 ‘얼굴’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실례를 살펴보자.

- (14) Stand with feet hip-width apart and place your hands behind your **head**, elbows out.
- (15) My eyes shift to follow him, but not my **head**. I congratulate myself on my restraint.
- (16) Speaking first, inspector Joe Resnick, **head** of the NYPD's special



investigations division.

- (17) It is not helpful to let all this just float around in my **head** without taking a closer look and getting input from an objective person.
- (18) My **head's** been in constant pain since the accident.
- (19) We're situated on 14,000 acres Silver Spur has 500 **head** of cattle, more than a hundred sheep, and 60 of the finest cow.
- (20) We got to the **head** of this mountain pass with this switchback road going downhill.
- (21) I step to the **head** of the table.

예문 (14)와 (15)에서는 'head'가 실제 신체 부위 '머리'를 가리키는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만, 예문 (14)의 'head'는 얼굴이 제외된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반면에, 예문 (15)의 'head'는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를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예문 (16)-(21)에 사용된 'head'는 신체 부위 '머리'의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이다. 예문 (16)에서는 'head'가 실제 머리가 아닌 어떤 집단의 '두목' 혹은 '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의미 확장은 상하 지향성이 개념화되는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문 (17)에서도 'head'가 신체 부위가 아닌 '생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문 (18)에 사용된 'head'도 신체부위를 지칭하기보다는 은유의 과정을 통해 '두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확장이 되어 사용된 것이다. 예문 (19)에서는 'head'가 '머리'가 아니라 '소 한 마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부로써 전체를 대신하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예문 (20)에 사용된 'head'는 신체 부위와 상관이 없는 '산의 윗부분'을 지칭하는데, 이는 'head'가 우리 몸의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산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신체어 'head'가 은유의 과정을 통해 산의 윗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21)에서는 'head'가 테이블의 윗부분이 아닌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짐승의 경우 머리가 몸의 윗부분이 아닌 앞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용된 것이다. 즉, 짐승의 머리의 위치가 은유의 과정을 통해 테이블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테이블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sup>11)</sup> 이밖에도 'head'가 머리스타일(hair style)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영어 신체어 'head'의 확장 의미는 대부분 상향 지향성을 나타낸다. '대표(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head'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데, 이

11) 일반적으로 'the head of the table'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를 지칭한다(Cambridge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것은 ‘head’가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을 통제하는 등의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즉 신체를 대표하는 신체 부위이고, 또한 신체 부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신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향 지향성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확장 의미는 ‘생각, 이성’으로 ‘head’ 부분의 위쪽에 위치하는 ‘뇌’의 작용과 관련되어 상향 지향성을 잘 반영한다. ‘head’가 환유의 과정을 통해 한 개체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도 ‘head’의 신체적 위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긴 ‘head’의 대표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영어 신체어 ‘face’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를 아래 표 4와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표 4. 영어 신체어 ‘face’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얼굴, 피부, 머리, 고개	170	34.0%
전체모습, 표정, 생김새, 인물	145	29.0%
동사	95	19.0%
직면	25	5.0%
겉 부분, 표면	19	3.8%
앞면, 앞부분, 머리 방향	13	2.6%
양상, 형세, 특징	11	2.2%
대표, 전체	9	1.8%
기타(체면, 상호명)	13	2.6%
합계	500	100%

위 표 4는 신체어 ‘face’의 원형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체어 ‘face’가 실제 신체 부위인 머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칭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34%에 해당되는 총 170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face’가 ‘모습, 표정, 생김새’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총 145회(29%)로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신체어 ‘hea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ce’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도 전체의 19%인 95개가 추출되었으나, 이는 말뭉치 검색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체어 ‘face’가 ‘어떤 것에 직면함’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총 25(5%)개의 용례가 검색되었으며, ‘겉 부분, 표면’을 나타내는 경우도 총 19(3.8%)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앞면, 머리 방향’을 의미하는 경우는 총 13개(2.6%)가 사용되었고, 어떤 것의 ‘모습, 양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 경우도 총 11개(2.2%)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신체어 ‘face’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그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총 9개

(1.8%)의 용례가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신체어 'face'는 '체면'이나 '명칭'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신체어 'face'의 다양한 확장 의미를 보여주는 다음 예를 살펴보자.

- (22) ... make him out in the shadows, crouched beside his friend, who rubbed his **face** with his palms and echoed.
- (23) Violet couldn't wait to see the look on his handsome **face** when she told him she was there to obtain an annulment.
- (24) Brendan's **face** is placid.
- (25) That horror awoke us from our satiated slumbers. In the **face** of death, we were forced to accept the fact that we actually needed each other.
- (26) Together, the spots covered nearly 0.8 percent of the sun's **face**, says Thomas N. Woods of the University of Colorado in Boulder.
- (27) Principal question was whether cost was relevant to the EPA's judgment. On its **face**, the statute might seem to block any consideration of cost and, indeed.
- (28) Michelle Robidaux, on the other hand, was a **face** in the crowd.
- (29) Matt Stone, the creators of South Park, a show that changed the **face** of cable TV and is currently in its sixteenth season.

예문 (22)는 신체어 'face'가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원형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보여준다. 반면, 예문 (23)에 쓰인 'face'는 실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원형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문 (24)에서도 'face'가 '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고, 예문 (25)의 경우는 신체어 'face'가 '어떤 것에 직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예문 (26)에서는 'face'가 태양의 표면을 지칭하는 확장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문 (27)에서는 '표면상'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는 'face'가 머리의 앞부분과 곁부분을 지칭한다는 점 은유의 과정을 통해 사물의 실제 표면 또는 표면적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예문 (28)에서는 신체어 'face'가 원형 의미로의 얼굴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환유의 과정을 통해 'face'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문 (29)에서도 신체어 'face'가 케이블 TV 회사의 전체적 특징을 지칭하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위 예문을 통한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신체어 'face'의 의미 확장은 대체적으로 전향 지

향성을 반영하며 나타난다. 즉, 전향-후향 지향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전향 지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향 지향이 다른 개체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3.2.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

본 절에서는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기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사용되는지를 '상향 지향성'과 '전향 지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머리'의 각 유의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표 5에 제시된 실제 말뭉치 용례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자. 전체 2,758개의 용례 중 무작위로 500개를 추출하여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한국어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형상, 모습, 짐승머리	259	51.8%
머리카락	103	20.6%
지능, 두뇌	48	9.6%
얼굴, 고개	13	2.6%
정신, 마음	13	2.6%
눈	13	2.6%
결손, 위신, 자존심	12	2.4%
장소	10	2.0%
윗부분	9	1.8%
고민(거리)	6	1.2%
도출	5	1.0%
기타(사람, 이성)	9	1.8%
합계	500	100%

위 표 5는 신체어 '머리'의 원형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신체어 '머리'는 총 259개(51.8%)의 사용 용례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모습'을 지칭하는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신체어 '머리'가 머리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경우도 총 103회(20.6%)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체어 '머리'가 신체 부위 '머리' 자체를 지칭하지 않고 사람의 지능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도 총 48개(9.6%)의 경우가 발견되어, 다른 확장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체어 '머리'는 '고개', '정신', '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13개(2.6%)로 나타났다. 또한, '머리'가 '숙이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겸손'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는 12개(2.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신체어 '머리'가 '장소'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도 각각 10개(2%)와 9개(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신체어 '머리'가 '고민'을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되거나 '도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사용 빈도수는 각각 6개(1.2%)와 5개(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신체어 '머리'가 사람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사람의 '이성'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검색된 용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용의 예를 보여주는 실례를 보자.

- (30) 남정네들의 음탕한 시선을 가리기 위해 흰 천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자들처럼 남자들이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목적도 여인들의…
- (31) 잠시 수국해 있던 봉선이 **머리**를 들며 서둘 듯이 입을 연다.
- (32) 젖은 **머리**를 드라이로 말리느라 머리칼을 치켜드니 새치가 언뜻언뜻 눈에 띄었다.
- (33)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연출이 눈을 가늘게 떴다.
- (34) 과거에는 기분전환을 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지만,
- (35) 돌이켜보면 조금만 **머리**를 숙였으면 편할 수도 있었다.
- (36) 일본의 주요 신문은 이날 1면 **머리**, 혹은 사회면 **머리**기사로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 (37) 3년을 꾸준히 내 **머리**를 봐주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변화를 원할 때조차 원하는…

예문 (30)에서는 '머리'가 신체 부위 '머리'를 가리키는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머리'는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의어 '고개'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예문 (31)에 사용된 '머리'는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 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의 변화 없이 유의어인 '고개'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예문 (32)에서는 '머리'가 신체 부위가 아닌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신체어 '머리'의 '머리카락'으로의 의미 확장은 환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문 (33)에 사용된 '머리'는 '지능'이나 '두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체어 '머리'의 의미 확장은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문 (34)에 사용된 '머리'는 '정신'이나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원래의 의미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예문 (35)에 쓰인 ‘머리’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자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확장이 되어 사용된 것이다. 즉, ‘머리를 숙이다’는 ‘자존심을 버리다’ 또는 ‘겸손하게 행동하다’ 정도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예문 (36)에서는 신체어 ‘머리’가 신체 부위와 상관이 없는 신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머리’가 우리 몸의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신문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체어 ‘머리’가 몸의 윗부분을 지칭한다는 점이 은유의 과정을 통해 신문의 윗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예문 (37)에서는 ‘머리’가 신체부위나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어 ‘머리’의 기본 의미는 은유와 환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통계와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의 의미 확장 양상은 상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상, 모습’ 등 공간적 지향성을 갖기 힘든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지만,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머리카락’으로 지칭하는 빈도가 가장 높으며, 이것은 머리 부분 중에서 상향 지향성을 갖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지향성은 ‘머리’와 ‘머리카락’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음성적 유사성도 공간적 지향성이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개념은 ‘지능, 두뇌, 생각’으로 ‘머리’ 부분의 위에 위치하는 ‘뇌’의 작용과 관련되어 상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 이 외에도 ‘정신, 마음’ 등 ‘뇌’의 작용과 관련된 범주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검토해 보자. 신체어 ‘얼굴’의 전체 사용 용례 5,940개 중에서 총 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머리’ 부위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얼굴’의 원형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한국어 신체어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표정	154	30.8%
머리, 얼굴(추상적, 물리적)	129	25.8%
모습, 생김새	86	17.2%
이름, 대표성, 이미지, 정체, 부끄러움	67	13.4%
전체모습, 사람	61	12.2%
기타	3	0.6%
합계	500	100%

위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체어 ‘얼굴’이 ‘표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총 154

회(30.8%)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머리'나 '얼굴' 부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총 129회(25.8%)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신체어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나 '생김새'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86개(17.2%)가 사용되었고, 어떤 것을 대표하거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즉 '얼굴'이 '대표성'의 의미로 확장된 경우도 총 67개(13.4%)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신체어 '얼굴'은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는데, 총 61개(12.2%)의 '얼굴' 용례가 이러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위 다섯 부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총 3개(0.6%)로 매우 적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신체어 '얼굴'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예문이다.

- (38) 2회 초 무사 2루에서 조금은 굳은 **얼굴**로 첫 타석에 들어섰다.
- (39) 지난 겨울리그서 다시 **얼굴**을 내민 최위정은 3점 슛 4개 포함, 16점을 적시에 터뜨렸다.
- (40) 그리고 상전이 꾸짖듯 말하는데도 그 아이는 눈길만 떨굴 뿐 **얼굴**은 곧게 들고 있었다.
- (41) 경지는 찬물에 비누 거품을 내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대충 씻었다.
- (42) 젊었을 적엔 꽤 고왔을 **얼굴**이다.

위 예문 (38)에 사용된 신체어 '얼굴'은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는 얼굴의 원형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표정'을 나타내는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사람의 '얼굴'이 실제로 굳을 수 없고, '얼굴'을 '표정'으로 교체하였을 때 의미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예문 (39)에 쓰인 신체어 '얼굴'도 단순히 얼굴 부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즉, 머리의 일부를 지칭하던 신체어 '얼굴'의 원형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로 분석된다. 예문 (40)에 제시된 '얼굴'은 '얼굴'을 포함하는 '머리'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의미의 변화 없이 '얼굴'이 '머리'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예문 (41)은 '머리' 부분에서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례, 즉 '얼굴'의 원형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며, '머리'나 '표정'과 같은 어휘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예문 (42)의 '얼굴'은 '얼굴' 자체가 실제로 부드럽고 곱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또는 '생김새'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이다. 즉,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얼굴'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용례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어 '얼굴'의 확장 의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표정'으로 전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 상향-하향 지향성과는 달리, 전향-후향 지향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전향'은 상호작용(interaction)의 방향과 관련되고, 후향은 상호 작용을 위한 '기초'나 '기반'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러한 차이는 영어의 'front-back'의 의미 확장 양상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코퍼스 자료상에 나타난 '표정', '모습, 생김새', '이름, 이미지,

대표성' 등은 상호작용을 위한 작용으로서 전향 지향성을 잘 나타낸다.

#### 4. '얼굴'의 유의어들의 연상적 의미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신체어 'head/face'와 한국어 신체어 '머리'는 유의어의 종류와 빈도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본 장에서는 '얼굴'의 유의어들 간의 연상적 의미 측면에서의 각기 다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얼굴' 유의어들은 가치중립적 신체어인 '얼굴'에 비해 부정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얼굴'에 비해 보다 특성을 나타내거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얼굴'의 유의어인 '낯'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의 표 7을 통해 살펴보자.

표 7. 한국어 신체어 '낯'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사람(익숙함)	28	26.2%
심리상태(부끄러움, 수줍음, 당황함)	19	17.8%
평판, 명예, 체면, 뻔뻔함	18	16.8%
표정	12	11.2%
머리의 앞면	8	7.5%
생김새, 성격	5	4.7%
기타	17	15.9%
합계	107	100%

위 표 7에 따르면 '얼굴'의 유사어인 '낯'은 머리의 일부분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 '부끄러움, 수줍음', '평판, 명예, 체면' 등의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익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 107개의 용례 중 총 28개(26.2%)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낯'은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등의 사람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총 19개(17.8%)의 '낯'의 용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어 '낯'이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총 18개(16.8%)가 있었고, '표정'의 의미로 사용된 '낯'도 총 12개(11.2%)가 확인되었다. 신체어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으로 사용된 '낯'의 용례는 총 8개(7.5%)로 다른 용례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얼굴'이 '표정'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낯'은 '익숙함', '부끄러움', '평판' 등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의미로 확장되었다. 다음은 '낯'의 기본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 (43)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낮**을 가려버렸다.
- (44) 어쩐지 대문 안으로 들어선 아주머니가 **낮**이 익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 (45) 무슨 **낮**으로 남 앞에서 웃고 살겠노?
- (46) 아버지의 **낮**을 봐서라도,
- (47) 그때야 윤희도 곤혹스러운 **낮**을 지었다.

예문 (43)에서는 신체어 '얼굴'의 유사어로 사용된 '낮'이 머리의 앞부분인 실제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낮'이 '얼굴'의 원형 의미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문 (44)에서는 '낮'이 머리의 전면부가 아니라 '익숙함' 또는 '익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반면 예문 (45)에서는 '낮'이 신체 부위가 아니라 '뻥뻥함'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문 (46)의 '낮'은 머리의 일부가 아닌 '체면' 또는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예문 (47)에 사용된 '낮'은 '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얼굴'의 원형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용례이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로 '낮짝'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 표는 '낮짝'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보여준다.

표 8. 한국어 신체어 '낮짝'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의 앞면	9	47.4%
뻥뻥함, 양심	4	21.1%
표정	3	15.8%
평판, 명예 등	3	15.8%
합계	19	100%

위 표 8을 통해 말뭉치 용례 검색 결과 총 19개의 '낮짝'이 '얼굴'의 대응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개의 용례 중에서 9개의 용례는 신체의 '머리'의 앞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지칭은 부정적 내포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람의 '표정'이나 '뻥뻥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총 19개의 용례 중에서 각각 3개의 용례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얼굴'과는 달리 '낮짝'은 '생김새, 성격' 혹은 '심리상태, 익숙함, 대표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 표 5에 제시된 의미 이외의 용도로, 즉 기타의 용도로 분류된 용례는 총 4개가 있었지만, 각 경우에 대한 빈도수가 너무 작아 따로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낮짝'의 실제 사용 용례이다.

- (48) 그자에게 갖다 바친 돈이 그동안 얼마였던가를 생각하니 그의 허여털건 **낯짝**을 재떨이로 후려쳐주고 싶은 충동으로 몸이 떨렸다.
- (49) ... 그 말에 현감이 어이없다는 **낯짝**으로 한참이나 차사원을 쳐다보다가
- (50) 어제? “어제 언제요? 낯에요?” “헉, 저들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별건 대낮에 호텔에 가노? 밤에 그랬제.”
- (51) 하긴 그렇다. 그리고 은근히 어떤 여편네가 **뻐뻐한 낯짝**을 들고 죽은 마누라 첫 제사가 돌아오기도 전에 들어섰는지 알아보고 싶지

예문 (48)에서는 신체어 ‘낯짝’이 머리의 앞면인 얼굴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예문 (49)의 경우는 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예문 (50)의 경우는 ‘낯짝’이 양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 예문 (51)의 경우는 뻐뻐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안면’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한국어 신체어 ‘안면’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관계	28	63.6%
머리의 앞면	13	29.5%
표정	3	6.8%
합계	44	100%

위 표 9에 따르면 ‘얼굴’의 동의어인 ‘안면’이 사용된 경우는 총 44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신체어 ‘안면’은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 부위’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관계’라는 추상적 의미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안면’이 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도 총 3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체면’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한국어 신체어 ‘체면’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위신	171	98.8%
생김새, 모습	2	1.2%
합계	173	100%

말뭉치 검색 결과 총 173개의 '체면' 용례가 검색되었고, '생김새' 또는 '모습'을 나타내는 2개의 용례를 제외한 모든 용례가 '위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얼굴'의 동의어인 '체면'이 '위신' 이외의 의미로는 확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체면'은 거의 전부 추상적 의미나 특성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은 '위신'의 의미로 사용된 '체면'의 실제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52) 점잖은 체면에 무슨 짓을 하라는 거냐?

예문 (52)에 사용된 '체면'은 사람의 '위신' 또는 '자존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체어 '얼굴'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얼굴'이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로 유의어 '체면'이 '얼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인 '위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신체어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면목'의 연상적 의미 양상을 살펴보자.

표 11. 한국어 신체어 '면목'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위신, 부끄러움	22	88.0%
생김새, 모습, 가치	3	12.0%
합계	25	100%

말뭉치 검색 결과 '면목'은 총 25개의 용례가 추출되었고, 그 중 88퍼센트인 22개의 용례가 '위신'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었고,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을 지칭하는 경우는 단 3개만 검색되었다. 이는 '체면'의 쓰임과 매우 흡사하게 주로 추상적인 의미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3) 그러나 식구들에게는 볼 면목이 없어 몰래 방안에서 열병앓이 하느라 고생을 했었다.

(54) 이 세 분야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민족주의자로서 장준하의 면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 (53)에서는 '면목'이 '위신' (혹은 '부끄러움')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예문 (54)에서는 '면목'이 사람의 진짜 모습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즉, 두 경우 모두 '얼굴'의 기본 의미가 아닌 확장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제 ‘얼굴’의 또 다른 유의어인 ‘면상’에 대해 살펴보자. 말뭉치 검색 결과 총 4개의 용례만이 검색되었는데, 4개의 용례 모두 ‘얼굴’의 원형 의미인 ‘머리의 앞면’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지만, 부정적 연상 의미로 사용된다.

표 12. 한국어 신체어 ‘면상’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수	비율
머리의 앞면	4	100%
합계	4	100%

신체어 ‘얼굴’의 유의어 ‘면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55) 청년 하나가 들고 있던 햇불을 김진봉의 **면상**에 겨누면서 불시에 육박해 들어갔다.

위 예문 (55)에 사용된 신체어 ‘면상’은 ‘얼굴’의 기본 의미인 ‘머리의 앞면’을 지칭하지만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또 다른 유의어인 ‘꼴’의 연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표 13. 한국어 신체어 ‘꼴’의 의미 확장 양상

의미	빈도	비율
상태, 상황	122	61.0%
정도	52	26.0%
물리적 생김새, 모습, 형태	26	13.0%
합계	200	100%

신체어 ‘얼굴’의 대응어로 ‘꼴’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총 200개의 용례가 말뭉치 조사를 통해 검색되었다. 표 13에 따르면 ‘꼴’의 쓰임 중에서 총 122개가 어떤 ‘상태’나 ‘상황’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정도’를 나타내는 용도로 총 52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신체의 모습이나 형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총 26개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꼴’이 ‘얼굴’을 지칭하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음은 ‘꼴’의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56) 묵묵부답했던 결과가 오늘의 이 **꼴**을 낳고 말았다.

- (57) 이제 처녀**꼴**이 박히기 시작한 금순 네를 데리고 그날도 지왓골댁은 시루봉 기슭으로 나무를 하러.
- (58) **꼴**에 방세는 몇 달씩 밀리면서,

예문 (56)에 사용된 '꼴'은 의미의 변화가 없이 '상태'나 '상황'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고, 예문 (57)에 사용된 '꼴'은 '모습'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예문 (58)에서 사용된 '꼴'의 경우는 '주제' 또는 '위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다. 위 예문을 통해 '꼴'이 '얼굴'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얼굴'의 확장 의미가 '꼴'이 내포하는 의미와 같거나 유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꼴'이 '얼굴'의 유의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다의성이 어떻게 의미 확장을 하였는지에 대한 가정을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두 신체어의 다의성은 은유와 환유라는 인지 과정을 통한 경험의 구현 양상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구현 양상을 통한 의미의 확장 과정도 공간적 지향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두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공간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head/머리'의 의미 확장은 상향 지향성의 관점에서 'face/얼굴'의 지향성은 전방 지향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코퍼스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의 두 신체어 'head/머리'와 'face/얼굴'의 의미 확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 경험이 다른 이유로 신체어를 통한 일상 경험의 구현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신체어 '얼굴'과 '얼굴'의 유의어들의 연상적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얼굴'에 비해 '얼굴'의 유의어들은 부정적 가치를 전달하거나, 특성적 의미나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김도형. (2014). *한국어 신체어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분. (2000). 신체어 관용구의 인지적 이해. *한국학 연구*, 11, 33-47.
- 김해연. (2010).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얼굴'의 은유적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49, 23-45.

- 배도용. (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도용. (2002). 우리말 '머리'의 의미 확장 연구. *국어학*, 40, 269-296.
- 서향미. (2013). *신체어의 은유적 의미 확장과 환유적 의미 확장 연구: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 (2006).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 (1998). 신체어 머리의 의미변화 고찰. *인문학연구*, 25, 43-59.
- 이광호. (2006). '낮'과 '얼굴'의 의미 고찰. *어문학*, 93, 81-108.
- 임지룡. (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 27, 223-254.
- 임지룡. (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229-261.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한지형. (2014). 한국어 신체어 '머리'와 '얼굴'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2014년 한국언어과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3-61.
- Brown, P., & Levinson, S.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pp. 56-3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rven, R. (1985). Metaphor as a basic means for extending the lexicon. In W. Paprotte & R. Dirven (Eds.), *The ubiquity of metaphor* (pp. 85-119). Amsterdam: John Benjamins.
- Kövecses, Z. (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won, Y. (2010). The polysemy of the motion verbs *go* and *come*.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7(2), 131-149.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Langacker, R.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o, S. (2006). A semantic analysis of 'face' in cognitive grammar. *Discourse and Cognition*, 13(3), 43-68.
- Strecker, I. (1993). Cultural variations in the concept of 'face.' *Multilingua*, 12, 119-41.
- Tyler, A., & Evans, V.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yvyan, E., &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김태호**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장전동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정보학과  
전화: (051)510-2037  
이메일: taehokim@pusan.ac.kr

**박기성**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장전동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510-2043  
이메일: ksepark@pusan.ac.kr

Received on July 27,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5, 2014

Accepted on September 5, 2014